

병원 AI 검색 노출 5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26-09-18 · 보일리(Boily) · boily.co.kr

환자가 ChatGPT·Claude·Gemini·Perplexity에 "〇〇동 〇〇과 추천"을 물었을 때 우리 병원이 답변에 나올 준비가 돼 있는지, **업체를 부르기 전에 직접** 확인하는 목록입니다. 원리만 담았고 특정 업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체크하세요. 체크가 많을수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A. AI가 읽을 수 있는 사실이 있는가

☐ 진료시간과 휴진일이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로 있다

배너 이미지·팝업 안에만 있으면 AI는 읽지 못합니다. '야간 진료', '토요일 진료' 질문에서 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진료 항목마다 설명 문장이 있다

메뉴에 시술 이름만 나열돼 있으면 "그 시술을 한다"는 사실은 전해져도, 그 시술에 대한 질문의 답은 되지 못합니다.

☐ 의료진의 자격·수련 과정이 글자로 있다

사진과 학력 이미지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을 근거로 답하는 엔진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보유 장비의 정확한 명칭이 본문에 있다

검사·장비 질문은 명칭 그대로 매칭됩니다.

☐ 비급여 안내가 PDF나 이미지가 아니라 페이지로 있다

'가격 괜찮은 곳' 같은 직답형 질문의 근거가 됩니다.

☐ 주차·야간·주말·소아 진료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다

조건이 붙은 질문은 그 조건이 문서에 있어야 걸립니다.

B. 표기가 모든 곳에서 같은가

☐ 병원명이 홈페이지·지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에서 글자까지 같다

다르면 AI가 다른 병원으로 취급하거나 신뢰도를 낮게 봅니다.

☐ 주소·전화번호가 모든 채널에서 같다

옛 주소나 옛 번호가 한 곳이라도 남아 있으면 신호가 갈립니다.

☐ 지점이 여럿이면 지점명 표기 규칙이 일관된다

C. AI가 읽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

☐ 구글·빙·네이버에 사이트가 등록돼 있고 사이트맵을 제출했다

빙을 빠뜨린 병원이 많습니다. ChatGPT의 웹검색은 Bing 색인을 경유합니다.

☐ robots.txt가 AI 크롤러를 막고 있지 않다

제작 업체가 기본값으로 막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이 등록·인증돼 있다

구글 검색을 근거로 쓰는 엔진이 이 데이터를 문서처럼 읽습니다. 한국 병원이 가장 많이 비워두는 칸입니다.

☐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가 최신이다

체크리스트 (2/2)

boily.co.kr

D. 직접 재봤는가

☐ 환자가 실제로 쓸 질문을 10개 이상 적어봤다

"○○동 치과 추천"처럼 지역+진료과, 시술명, 증상, 조건(야간·소아)을 섞습니다.

☐ 그 질문을 4개 AI에 각각 던져봤다

한 엔진만 보면 다른 엔진의 0을 못 봅니다. 같은 병원이 엔진에 따라 40%와 0%로 갈립니다.

☐ 같은 질문을 시간을 두고 두 번 이상 던져봤다

답은 실행마다 달라집니다. 한 번 확인은 표본 하나입니다.

☐ 병원 이름이 들어간 질문은 따로 썼다

병원명을 넣으면 거의 항상 나옵니다. 섞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 우리가 안 나온 질문에서 어느 병원이 나왔는지 봤다

그 병원의 무엇이 인용됐는지가 다음에 채울 항목을 알려줍니다.

☐ 답변에 붙은 출처가 어떤 종류인지 봤다

지도 데이터인지, 병원 홈페이지인지, 디렉토리인지에 따라 고칠 곳이 달라집니다.

E.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 '지역 1위', '가장 잘하는' 같은 최상급 표현이 없다

의료광고 기준에서 위험하고, AI가 그런 문장을 더 인용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표나 문구가 없다

☐ 환자 후기를 홈페이지 본문에 옮겨 쓰지 않았다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걸고 리뷰를 받지 않았다

환자 유인 문제와 거짓·과장 광고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 AI 답변 캡처를 홍보물로 쓰지 않았다

추천·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AI 노출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답변에는 광고 슬롯이 없고 실행마다 결과가 달라 보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읽는 법. A와 B의 체크가 비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그쪽이 먼저입니다. AI가 인용하는 문장은 대부분 진료 항목·자격·장비·진료시간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C가 비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도 읽히지 않습니다. D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지금 상태를 모르는 채로 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E에 체크가 안 된 항목이 있다면 그건 노출보다 먼저 정리할 문제입니다.